



정기간행물 등록 14호 Vol.36

등록번호: 경기000007 등록일: 2005년 8월 7일
발행일: 2009. 4. 1 권역: 수도권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9-1 (우) 06060
주 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9-3 제1우체국지정 6178
TEL 02-3432-1086 FAX 02-3432-1085



격월간

CONTENTS

수직정원의 디자인 도입과 전망	1
현장 가이드	2 3
품종 갤러리	4 5
리더스 초이스	6
포토 스토리	7
품종 토크쇼	8 9



특집 | 붉은 잎이 아름다운 식물들

우리꽃 따라잡기



최근 정부의 신성장 동력의 한축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는 인간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새로운 개념이자, 큰 흐름이다. 또한 세계적인 불황의 구름이 걷히고 나면 선전의 순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정인으로서 또한 농업인으로서도 이번 정부의 녹색성장의 화두는 매우 적절하게 아닌가 한다.

우리는 녹화라는 개념에서 아직도 머물러있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법면녹화, 공원녹화, 산림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까지 녹화라는 개념은 우리조경인의 큰 화두요 책임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녹화라는 개념에 이제 추가될 것이 있다. 바로 디자인이 추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제 단순한 녹화가 아닌 법면정원, 산림정원, 옥상정원, 수직정원으로의 사용단어를 수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수행하는 디자인도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이용성과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과 식물의 생리생태적인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기본에 충실해야만 한다.

특히 수직정원은 사람들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정원이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90도의 수직벽, 특히 콘크리트, 암, 철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혹은 건축물 등에 식물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사실 아직 수직의 벽면에 디자인이 없는 단순한 녹화만을 완성해도 우리는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초보적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녹화의 개념에서 습득되고 개발된 사례와 자재의 활용으로 이제 바로 디자인을 표현하는 수직정원의 연출이 더욱 필요해졌고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지자체나 기업의 마크나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 등을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예나하면 수직의 벽면 측, 스크린과 같은 곳에 원하는 글자나 문양 등을 표현하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구호나 마크 등은 너무 가볍

고 식상한 재미없는 디자인이 아닌가 한다. 발상의 전환은 이런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무언가 그려질 듯, 느껴질 듯 하면서도 뭔가 고급스럽고 안정되어 보이는 그런면서도 연출 감상 가능한 수직의 정원디자인에 대해 우리는 바로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디자인적 소재인 식물이 중심이 되고 이들 식물이 연출하며 보여주는 품빛과 꽃색 또한 단풍이나 겨울의 상록, 그리고 열매까지도 어우러질 수 있는 혼합의 디자인을 제안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가 선보이는 벽화수는 디자인도, 설치방법과 관리 방법도 아직은 시작의 단계이다. 하지만 그 디자인의 가능성, 식물상호간 어울림의 디자인, 생활에 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유용한 디자인, 녹색성장의 새로운 컨셉이 되는 디자인과 적용이 되길 기대하고 소원한다.

이제 수직의 디자인 수직정원의 가능성은 우리가 일반적인 평원의 토지에 디자인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문성 혹은 기법은 더욱 다양하고 되고 그 차별성의 가치가 성장동력이 되는 시간은 머지않은 장래의 일이 아닐까 한다. ()



기존에 실행던 '현장리포트' 코너를 좀 더 강화하여 실제 현장 조경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다양한 조경가법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다.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서울경마공원

경기도 과전에 위치하는 경마공원은 꽃공원을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숙근초를 이용하여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꽃의 한계라는 시민공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06년 Flatopia 1단계 조성

정마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즉 Flatopia (Flower+Utopia)의 합성어로 고객에게 지상최고의 공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KRA의 시설서비스 가치체제) 추진속에 한국마사회에서는 꽃공원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서울경마공원 야생화 정원은 2006년 3월 초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기존 주말농장이던 지역을 갈아엎고 관수 시설을 하고 식재가 완료되기까지 약 한달 반이 소요되었다. 약 2000㎡의 면적에 기본 터를 잡고 마운딩을 주어 여러 화단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다닐수 있는 동선을 주었다. 소재의 선택은 자생 야생화를 가지고는 전체적인 정원을 조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KRA의 우정훈 과장은 '우리꽃'과 협의의 아래 식재되어질 품종을 선택하였다. 각 화단마다 품종을 달리하여 작은 면적의 화단은 3~4품종으로 간단하게 하였고 큰 면적은 10종 이상의 품종을 적용하였다. 4월 중순, 66종 34,900여 본의 숙근초가 식재된 서울경마공원 야생화 정원 조성이 완료되었다. 식재 후 약 2개월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고 고객들의 발길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7년 Flatopia 1단계 최종완성

1년을 지나고 나서 제일 문제점이 배수 문제였다. 전반적으로 물빠짐이 좋지 않아 식물이 고사되거나 생육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다. KRA에서는 앞으로를 위해서 일부 화단의 기존 식재되어진 식물을 다시 뽑아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물빠짐이 좋도록 단계를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배수작업을 다시 하였다. 그 노력으로 물빠짐 문제는 해결하여 식물의 생육은 문제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화단에 새로운 품종을 보완식재하거나 교체작업을 진행하였다. 화단 한군데를 완전히 새롭게 세미락가 등으로 새단장 하기도 했고 허브정원은 대부분 생육이 좋지 않아 축소하면서 일부 품종도 보완하였다. 전체적으로 새단장을 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변모하였고 Flatopia 1단계가 최종 완성되었다.

공원 조성시 고객설문조사를 통한 고객요구사항 반영이라는 Flatopia 추진원칙에 따라 KRA에서는 6월 설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설문결과 80.5%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빠른 입소문으로 평일 이용객수가 증가 하였고 가족, 연인들의 많은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 났으며 드라마 촬영장소로도 이용되어졌다.



2008년 Flatopia 2단계 조성

전년도 고객설문결과 중 불만족사유로 정원의 규모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아 KRA에서는 정원 규모의 확대를 계획하게 되었다. 장소를 현재 정원 옆쪽의 잔디밭을 이용하여 포천류식물원의 무지개 정원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단장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량후록스, 가우라, 스텔라원주리, 톱풀 비단, 황금조팝, 꼬리풀 블루, 털수염풀 등 꽃이 화려하고 장기간개화종을 위주로 약 2,200㎡의 면적에 무지개 정원을 완성하였다.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되는 6월부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여 대면적에서 형형색색의 꽃들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에 고객들은 철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2차 고객설문 조사결과 89%의 만족도 결과가 나와 전년 대비 8.5% 상승되었고 평일이용객수도 06년 대비 12.7%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참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꽃과 함께하며 즐길수 있는 만인의 지역명소로 거듭나고 시민공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구분	06년(명)	07년(명)	08년(명)
평일이용객수	132,636	136,087 (2.6% ↑)	153,330 (12.7% ↑)



인터뷰

1 야생화정원을 조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전에는 현 야생화정원 부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고객공간으로 돌려주라는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었습니다.



우정훈 KRA 과장

2 정원을 조성하면서 느꼈던 애로점은 무엇이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생 야생화가 가장 좋을 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 야생화만으로 정원을 꾸밀 경우 거의 실패합니다. 자생 야생화는 꽃의 화기가 짧고, 꽃이 진 후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이 차이를 메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3 자체 설문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원조성후 이용객수를 비롯하여 이용만족도가 동시에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장 담당자로서 방문객을 보면서 이전과 다르게 피부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그동안 서울경마공원의 이미지는 무척 어둡고 나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야유회와 데이트 코스로 각종 방문 만큼 이미지 변화에 성공하였었습니다.

4 근래들어 지자체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공원 등을 조성할때 꽃을 이용한 조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경관을 조성하였던 경험자로서 앞으로 조성하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첫째, 야생화 정원은 식재후 바로 초기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약 2개월정도 지나야 제모습을 가지고 어우러집니다. 담당자가 여러 비난을 견디고 이 기간을 버티야 좋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생 야생화와 숙근초, 일반 초화를 적절히 배합하여 연중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명칭상 야생화정원이라고 보다는 숙근초정원이 맞을듯 싶은데, 우리나라 토종야생화가 많지 않다고 묻는 사람은 없는지? 숙근초정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 이해도를 낮추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날 야생화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에게 잘 와 닿습니다. 그리고 토종 야생화가 부족하다는 고객 의견이 많이 저희도 지속 보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6 현재 야생화 정원은 상당히 평면적입니다. 앞으로는 고객들이 야생화 정원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토피어리, 버림개비, 조각 상 등 입체적인 아이들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품종 갤러리

2003년도를 기점으로 '우리꽃'에서 많은 조경용 숙근지피식물을 선보이면서 조경용 지피소재의 적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왔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앞으로 우리품종을 외국에 로열티를 받고 수출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번 코너는 이런 점에서가운데 소개되어졌거나 새롭게 개발되어진 품종들을 총망라하여 다시 한번 현대적, 생태적, 조경에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노랑에키나

Echinacea paradox
국화과. ☀️



많은 에키나 품종중 화색이 노란색을 띠는 품종으로 키는 60~70cm정도 자라고 7-8월경 지름 10cm정도 크기의 꽃을 피운다. 꽃잎은 위에서 아래로 처지는 형상을 하며 잎은 어긋나며 전체적으로 털이 많다.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며 기본적으로 생육이 강하다. 화단에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뒤쪽에 반쯤해주어도 좋고 특히 무늬새그라스, 몰리니아 등 그라스류와 어울려 식재를 해주어도 잘 어울린다.

꽃잔디 레드선

Phlox douglasii 'Red Sun'
꽃고비과. ☀️💧



화색이 빨간색을 띠는 꽃잔디로 별모양의 꽃이 모여 구형을 이룬다. 4~5월에 꽃을 피우며 포복성으로 자란다. 대면적에 단독식재하거나 화색이 좋아 다른 꽃잔디 품종과 서로 어울려 심으면 좋다. 특히 구형의 품이 좋아 라인식 물로도 이용해도 좋다. 번식은 주로 가을에 삽목을 하여 증식한다.

후룩스 봄맞이

Phlox divericata 'Chattahoochee'
꽃고비과. ☀️

후룩스와 꽃잔디의 중간형태를 띠는 품종으로 키는 40~60cm정도 자라고 5월중순부터 6월까지 분홍색의 꽃을 피운다. 꽃이 매우 다화성이고 조밀하게 피어난다. 화기가 다른 여름, 가을식물과 혼식하면 좋고 특히 꽃잔디와 개량후룩스와 혼식하면 한 장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봄에 꽃을 피우는 소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봄꽃 소재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초롱꽃 체리벨

Campanula punctata 'Cherry Bells'
초롱꽃과. ☀️🌑



종모양의 자주색 꽃을 피우는 초롱꽃으로 6~7월경에 피운다. 키는 50~60cm정도 자라고 줄기와 잎 뒷면이 모두 적색을 띠고 식물전체에 털이 많다. 햇빛이 어느정도 잘 들어오는 나무아래 반음지에서서도 잘 자란다.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번식은 뿌리줄기가 왕성하게 발달하여 이들을 분주하면 된다. 화단에 군식하는것 보다는 다른 식물과 어울려 혼합식재할 때 포인트 식물로 좋은 식물이다.

대사초 골든라이트

Carex okamotoi 'Golden Light'
사초과. 🌑



잎의 안쪽에 선명한 노란무늬가 있으며 다른 대사초 품종들에 비해서 잎이 좁고 길게 나온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잎이 매우 조밀하고 포복성으로 자란다. 건조습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나무아래, 건물주변 등의 음지에서 잘 적응한다. 황금색의 무늬는 어두운 음지를 밝게 해주기 때문에 음지에 호스타 등과 잘 어울려 심으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잎 새김의 대비를 통해서 잎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경관 연출이 가능하다. 번식은 봄, 가을로 분주하거나 삽목하면 된다.

톱풀 레몬

Achillea filipendulina 'Hoffnung'
국화과. ☀️🌑



키가 60~70cm정도 자라며 화색은 노란색을 띤다. 잎은 거치가 심한 톱니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꽃은 6월부터 개화하여 10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데 1차 개화로 커팅해주어야 빠르게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대단위 군식을 하거나 혼합식재시 적용하면 좋고 적색의 톱풀 품종과 같이 심으면 화색이 대비되면서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후룩스 미스린가드

Phlox 'Miss Lingard'
꽃고비과. ☀️



키가 80~90cm정도까지 크게 자라는 후룩스 품종으로 하얀색 꽃을 피운다. 꽃은 다른 후룩스 품종보다 빠르게 6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1차개화 후 꽃봉오리를 커팅해 주면 10월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다. 잎이 좁고 가늘며 광택이 있다. 생육이 매우 강건하여 도로화단 등 어디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며 군식을 하거나 다른 후룩스 품종들과 어울려 심으면 좋다. 분주를 하거나 삽목을 통해서 증식이 가능하다.

옥잠 엘레강스

Hosta sieboldiana 'Elegans'
백합과. 🌑💧

잎의 직경이 15cm 이상의 대형 품종으로 잎이 두꺼우며 색감이 블루톤으로 질감이 매우 좋은 품종이다. 꽃은 6~7월 경에 꽃대가 올라와 꽃대에 차례차례 매달려 하얀색꽃을 피운다. 음지에 매우 잘 적응하여 무늬종 옥잠 종류 또는 무늬종 식물과 혼식하면 질감이 한층 돋보인다. 수번에도 잘 적응하여 개류, 폰드주변에 식재하면 좋다. 번식은 주로 늦가을

에 잎이 진후 포기나누기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꼬리풀 이브

Veronica 'Everline'
현삼과. ☀️🌑



키가 50~60cm정도 자라는 꼬리풀 품종으로 6월경 약 15cm 길이의 촛불모양의 자주색 꽃을 피운다. 1차개화 후 꽃이 질무럼 커팅을 해주면 가을에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서나 잘 자라며 햇빛이 어느정도 잘 들어오는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화단에 군식, 열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피숙근코스모스

Coreopsis rosea 'American dream'
국화과. ☀️🌑



6~10월까지 장기간개화. 화수가 많은 다화성의 식물로 화색은 연분홍색이고 키는 15~20cm정도 자란다. 꽃의 직경은 약2cm 정도로 다른 숙근코스모스에 비해 키와 꽃이 작은 품종이다. 1차 꽃이 만개후 지그나면 커팅해 주어야 2차개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다. 혼합식재시 앞줄식물로 이용하면 좋고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화색으로 조성할 때 잘 어울리는 품종이다. 번식은 삽목 또는 분주가 가능하다.

백두산애기기린초

Sedum middendorffianum 'Baekdoo'
돌나물과. ☀️💧💧



백두산 근처에서 원종을 가지고 와서 '우리꽃'에서 분리육종한 품종으로 현재 품종등록출원 중. 잎이 매우 조밀하며 꽃은 5~6월에 진한 노란색으로 피고 잎은 진한 녹색을 띤다. 식물형태는 지면에 깔리는 형태로 자라고 가을이 되면서 식물전체가 단풍이 들고 겨울철에도 반상록상태로 월동을 한다. 복사열과 건조에 강하여 옥상, 암석가든에 적용하면 좋고 다른 세류들에 비하여 습도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늬꽃범의꼬리

Physostegia virginiana 'variegatum'
꿀풀과. ☀️



잎 가장자리에 흰줄무늬가 진하게 들어가 있고 키는 70~80cm정도 자란다. 7~8월에 연분홍색의 꽃을 꼬리형태로 피우는 것은 일반 꽃범의꼬리와 비슷하나 잎이 크며 잎 가장자리에 거치가 있다.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잎의 무늬가 선명해 꽃이 없는 시기에도 관상가치가 뛰어난 식물이다. 번식은 분주를 하거나 삽목을 하면 된다.

몰리니아

Molinia caerulea
화본과. ☀️

잎이 진녹색으로 직립형으로 자라는 그라스 품종으로 7월부터 이삭이 맺히기 시작한다. 가을이 되면서 진녹색의 잎은 갈색으로 단풍이 든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진녹색의 잎과 열매가 가을에는 줄기와 잎 전체가 단풍이 들어 계절감을 느끼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갈뿔 라인식재나 모야 식물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키의 크기(70cm, 40cm, 20cm)에 따라서 3가지 품종이 있는데 현장여건에 맞추어 품종 선택이 가능하고 잎에 노란무늬가 있는 무늬종도 있다.



스노우라인

Carex conica 'Snowline'
사초과. ☀️🌑💧



키가 10~15cm정도의 작은 그라스종으로 난형대로 잎이 퍼져 있는 형태를 이룬다. 잎은 얇고 녹색바탕에 바깥쪽으로 줄무늬가 들어있는데 광택이 좋은 왁스층이 발달해 부드러우면서도 질감이 뛰어나다. 점식나열을 하거나 락가든의 돌틈식재나 겨울 상록성을 잘 표현하는 포인트 식물로 좋고 에버골드, 골드밴드 등의 식물과 어울려 식재하면 좋다. 번식은 봄, 가을로 포기나누기를 분주.

무늬엔젤리카

Aegopodium podagraria 'Variegatum'
산형과. 🌑💧



잎 전체에 무늬가 부정형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식물로 봄새싹이 나올때에는 노란무늬가 들어 있다가 잎이 커지면서 점차 흰무늬로 바뀌어진다. 키는 40~50cm정도 자라고 5~6월경에 흰꽃을 피운다. 음지에 잘 적응하므로 수목아래 식재하거나 무늬가 눈에 잘 띄어 데크주변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이다. 그리고 수번식물로도 적용이 가능하여 연못을 조성할 때 다른 식물과 잘 배치하면 무늬의 질감이 뛰어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름에 피는 신소재 스타치스

자주색의 고급스러운 꽃무리

사람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화려하거나 강렬한 식물이 있는 반면 파스텔톤의 은은한 느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식물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스타치스는 그 중간 정도의 소재라고 할까.

타원형의 길쭉한 잎이 매우 조밀하게 모여 있다가 7~8월경 여러 꽃대가 직립형으로 가지런히 솟아올라 자주색의 꽃이 마치 꽃향유같은 형태로 모여 피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우 고급스러운 형태를 보여준다. 잎에는 많은 주름이 있고 형태적으로 오이풀의 잎과 매우 유사하기도 한데 여름까지 꽃이 피기전 동안에 밝은 그린색의 잎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모습도 매우 깔끔함을 느끼게 해준다.

보통 30~40cm정도 자라 혼합식재시 중간식물로 적용하거나 락가든에 여름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식물과 어울려 조화롭게 배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소재이다.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직립형으로 자라고 쓰러짐이 없어 언제나 정갈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번식은 주로 봄, 가을로 포기나누기를 하면 되



고 생육은 매우 강건하여 불바람이 불면 어딘가에 서나 잘 자란다. 스타치스는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여 키가 작은 품종과 잎과 꽃이 큰 품종 등이 있는데 메인사진에서 볼 수 있는 스타치스 '휴멜라'가 현재 주로 판매되고 있는 품종이다. 앞으로 여름꽃으로 적용이 유용한 소재로 적극 추천해본다. (C)

수변의 강렬한 아름다움 아스틸베

다양한 품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루오줌은 대표적인 수변식물로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 많은 품종이 개발되어 자생종 노루오줌과 구별하여 아스틸베로 불려지며 이용되어지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해도 조경용보다는 분화용으로 수입되어 한정적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꽃이 매우 화려하고 초형도 아름다워 조경용으로 사용 가치도 뛰어난 사용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화색은 분홍색, 흰색, 붉은색 등 품종에 따라서 다양하고 보통 45cm 정도의 높이로 자라고 품종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 잎은 대부분 광택이 있어 윤기가 반짝이고 품종에 따라서 색상의 차이가 있는데 푸른색, 붉은 빛을 띠는색 등 다양한데 특히 적색을 띠는 품종은 꽃이 피기전에도 잎 자체로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수변의 그늘진 곳에 대량으로 군식하면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습지의 대표적인 소재이다. 보통 반그늘 또는 그늘지역에 알맞은 식물이지만 너무 적박하지 않고 적당히 수분을 유지해 준다면 일 반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그늘진 수변 뿐만아니라 일반 화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토양은 기름진 토양을 좋아하므로 어느정도 수분이 유지되는 풍부한 유기질이 많은 부식질 토양이 좋고 여름에 잘 마르는 진흙 토양 등의 경우는 토양을 개선한 뒤 식재하여야 한다.

번식은 품종의 경우 종자파종으로는 원래의 품종을 재생산 할 수 없으므로 분주에 의해서만 원품종을 유지할 수 있다. 분주는 이름 붙 또는 늦가을에 식물을 굴취하여 눈을 2~3층 붙여서 포기나누기를 실시한다.

현재 '우리꽃'에서는 8품종이 판매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품종이 출시되어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줄 것이다. (C)

파주 서퍼리 꽃마을 축제

이번 호의 포토스토리는 파주 심학산 둘레길 축제장의 서퍼리 꽃마을이다. 파주의 이 작은 농촌 마을의 봄엔 사람들이 위해 작지만 유명한 축제가 시작된다. 축제가 2회를 넘기로부터 파주 서퍼리 둘레길 꽃마을은 봄의 시작과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 물론 축제의 시작은 5월 30일부터 일주일 간이라 한참 남았지만 삼삼오오 사람들이 몰려들어 작은 전원마을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단골대방객 들이다. 새로운 문화를 씩씩한 둘레길 꽃축제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다.

2007년 처음 둘레길꽃마을 축제가 시작되고, 끝이 나고 그리고 한 달 후에도 그 축제의 여운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을까지 지속적인 방문객이 찾아준 것은 서퍼리 작은 마을의 문화 때문이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마을 사람 모두가 스스로 자신들의 정원을 가꾸고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주변의 자연 여건이다. 파주시에서 처음 축제를 기획하면서 둘레길에 이 전원 마을에 색다른 정원을 연출했는데 바로 우리꽃에서 조성한 물과 돌 그리고 바람까지도 담아내는 ARI Garden이다. 우선 마을 이름이 둘레길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의 둘레길 많은 곳인데 이 둘레길 매우 동글고 아름다운 바위이다.

변을 잡으면서 나온 현장의 바위와 자연그대로의 바위를 서로 자연의 멋대로 구성하여 놓고 그리고 지

형을 그대로 살리며 조성한 계류는 아주 꿈꾸어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로 하여금 너무 아름다운 계류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놓여진 바위와 마운드, 그리고 계류의 주변까지도 세심하게 식재된 100여종의 식물들이 고스란히 어울려 누구도 한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을 정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운데를 마운드를 주어 높게 하고 10톤은 족히 나갈 바위를 대형 포크레인으로 끌 듯이 옮기고 주변에 무늬석과 그라나이트를 삼각으로 심어 포인트와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정원 우측에도 마운드와 대형의 바위를 그리고 정원의 입구 가운데를 연못을 파고 마운드를 없애는 대신 여기서 큰 바위를 놓아 균형 잡았다. 그리고 각 지점이 되는 곳에 작은 포인트를 주고 이 포인트들이 중앙의 주포인트와 큰 틀에서 어울림과 안정감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원래 콘크리트 농수로 위에 직선의 데크를 놓아 정원을 구분한 것과 난간을 두지 않아 정원을 이은 느낌도 있게 했다.

이후 식물이 시간을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정원에 꼭 빠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전원주변의 마을 분들은 "우리가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라며 외국의 어느 잘 조성된 정원도 이렇게 자연을 담아낸 경우를 못 보았다고 한다.

2009년 5월 30일 다시 파주의 작은 전원마을 서페





화려한 덩굴 식물

클레마티스



클레마티스는 세계각지에 분포하며 여러 형태가 있다. 대부분이 덩굴성으로 일부가 직립성이다. 줄기는 목본화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보통은 모두 다 합쳐 숙근초로 취급한다. 현재는 230종 이상이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5월 정도에 개화하지만 많은 품종이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한다. 클레마티스는 기어오르는 생태적 특성으로 알맞은 지지대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하여 잘 식재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우아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지지대는 자연스러운

을 살려 침엽수, 작은 관목, 장미 또는 다른 덩굴성 식물들을 활용할 수 있고, 벽면, 펜스, 파고라, 아치, 트랜시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지피식물로 활용하기도 한다. 작게 꽃이 피며 밀도 높게 생장하는 클레마티스를 이용하면 지표면을 아름답고 특색있게 피복할 수 있다. 철사를 이용하여 핀을 만들어 줄기를 고정하여 피복하는 모양을 잡는다. 민달팽이류와 같은 해충을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생장력이 왕성하지 않고 모양이 아담한 품종은 분화식물로 안정맞춤이다.

현장에서의 적용



- 클레마티스와 장미
장미와 클레마티스는 잘 어울리는 단짝친구와 같다. 재배상 요구조건도 매우 비슷하다. 색깔이 잘 어울리고 전정 등 관리요구가 비슷한 품종을 찾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함께 꽃이 피도록 할 것인지, 각각 개화기가 다른 품종을 선택할지 계획상 정한 뒤,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 클레마티스와 장원구조물
정원의 구조물은 클레마티스에게 뛰

어난 지지대가 된다. 벽을 활용할 때는 트릴리스나 튼튼한 플라스틱 코팅된 철사등으로 클레마티스가 걸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벽 밑의 토양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클레마티스에게는 취약한 토양조건이다. 30~40cm 정도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주기적 관수가 필요하다. 다양한 모양의 트릴리스 또한 여러 각도에서 감상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지지대이다.
③ 지피식물로서 클레마티스
'Hagley Hybrid', 'Jackmanii Rubra', 'Niobe', 'Pink Fantasy', 'Westerplatte' 등의 품종은 지표면을 매력적으로 피복한다. 식재상 특이한 법은 없으나 줄기가 평행하게 자라도록 고정하고 모양을 잡도록 관리해 주어야 한다. 해충에 민감해질 수 있으니, 강한 품종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품종소개



형태, 생태적 특성

클레마티스의 꽃은 크기 모양 색에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함을 보여준다. 검은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표현하며 겹꽃, 홑꽃 모두 있고, 크기도 작은 꽃부터 큰 꽃까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피식물로 활용될 만큼 왕성한 생장력을 가진 것부터 화분에 키우기 알맞은 품종까지 그 생장특성 또한 다양하다. 보통 따뜻하면서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지역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색이 옅은 꽃은 강한 햇빛에 색이 바래므로 반음지가 적당하며, 큰 꽃 클레마티스는 꽃이 필 때 바람에 약하므로 바람막이가 필요하다. 향기가 좋은 클레마티스는 햇빛이 잘 드는 지역이 좋으나 주기적인 관수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관수와 영양공급을 해주어야 하며, 비옥한 양토를 선호한다.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



관리 및 재배방법

전정

지라는 모양을 깨끗하게 만들고 생육을 왕성하게 만들려면 눈과 꽃의 발달을 촉진하도록 전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새로 식재한 클레마티스는 지표면에서 30cm 정도로 전정한다. 이러한 전정은 토양 표면 근심에서 새로운 줄기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Clematis armandii, C. forsteri, C. paniculata 등과 같은 품종은 과도하게 전정하면 생육이 과도해 지므로 주의한다.



번식

종자번식 비옥한 양토에 위 1cm 정도는 물빠짐이 좋은 종자용 퇴비를 깔고, 종자간 0.6~1.2cm 정도의 간격이 두께를 뿌린다. 퇴비를 적절하게 뿌려 종자를 덮고, 가는 모래를 덮어 퇴비가 마르지 않고, 종자의 교환을 최소화시킨다. 살균제가 포함된 관수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레이어링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영양생식방법으로, 늦은 봄과 이른 여름, 또는 여름과 이른 가을 사이가 클레마티스를 레이어링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생육이 왕성하고 유연한 줄기를 선택해야 하며 1.25cm 정도 깊이로 묻어야 한다. 줄기가 항상 촉촉하도록 관수를 해주어야 한다.



삼목 보통 봄에서 이른 여름 사이에 삼목하여, 뿌리내리는 데에 8주 정도 걸린다.

삼목초기기에 수분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흙문제와 살균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품종의 화려한 덩굴식물

클레마티스

50종 판매 중 !!!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02-1686~8

나왔다! 축제용 4계절 혼합종!

전천후 축제용 페스티벌혼합종시리즈

계절용 페스티벌 '스프링', '썸머', '스카이' 4가지 색상을 이용한 페스티벌 '화이트', '핑크', '레드', '블루' 키가 작은 페스티벌 '웨스트'



구입문의 : 02)3402-1686~8

우리 원터치 시티가든

보도블록위에도, 계단에도,
교통섬 안전지대에도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한 화분
1회 관수만으로 2개월은 거뜬한
신개념의 화단형 화분 시스템입니다.

특제. 해사 디스플레이의 관념을 갱 새로운 조정자재



이런 봄 겨우내 썰렁하고 무겁게 놓여있던 도로
 가의 대형화분엔 아름다운 꽃이 심겨지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너무 아름답다고 한다. 겨울에는
 매우 지저분하고, 쓰레기 통으로 전락한 보기 싫은
 화분이었는데 정리를 하고 꽃을 심으니 얼마나 이쁜
 지 모르겠다.

도시에 많이 조성되어 있는 콘크리트 혹은 데크 등 인공의 장소에는 식물이 살지 못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화분이라는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흙을 채우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어 식물이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도 잘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관리를 하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보고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회색의 콘크리트 보도와 교통등, 옥상, 광장 등 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에 언제부터인가 대형 화분이 등장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시, 군 자치단체의 도로가 혹은 관공서 건물 앞에는 대형의 화분이 항상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이라 옮겨 다니기가 어렵고 항상 한변 놓이면 1년 내내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이다.

“민원실이죠? 그 00도로가 화분에 보리가 말라 죽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화분이 지지분한테 왜 청소안합니까? 아니

“화분에 물 안줘요? 꽃이 죽어가잖아요? 담당공

무원이 누구이고 뭐하고 있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길거리의 대형 화분은 우리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골칫거리인지도 모른다. 무겁고, 껌박하고 관수 한번 안하면 말라 죽어 버리기 쉽고, 그렇다고 빨리 교체 혹은 치울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은 물론이고 관리에서 디자인까지 한



번에 해결한 새로운 개념의 가든 제품으로 [시티가든]이 출시되었다.

시티가든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량의 윈터치형 화분이다.

가벼워 다루기 쉬워 어디에 놓거나 지우기가 편리하고 식재면적은 넓고 식재구멍(식형)이 이미 나 있어 4치 포트를 뽑아 꽃이만 주면 식재가 완성됨은 물론 1회 의 관수로 최소 2달은 유지가 되며 영양분이 잘 혼합되어 식물생육의 최적조건을 갖춘 제품이다.

모도블럭 위나 도로가, 교통섬,
계단, 옥상, 광장의 콘크리트바닥
에도 놓고 뜯어 식물만 꽃으면 되는 신개념의
경량 윈터치형 화분 시스템이다.

매우 간단한 개념의 화분시스템으로 식생부가 있다. 우리꽃이 제조특허를 받은 것으로 적량의 섬유와 코코피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제올라이트, 수용성 비료, 황균질물과 습윤제 그리고 미량요소가 잘 결합된 상토를 혼합하고 열을 주어 불룩한 형식시킨 것으로 성형에 의해 식물을 두어 식물 포트를 꽂기 위한 하판 지체 완료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방근 부직포를 두어 너무 많은 뿌리가 저수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며 삼투현상으로 저수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아래 저수부가 있는데 요철판으로 된 저수부는 평상시에는 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적당한 배수관의 역할도 겸하는 층이다. 이들 내용물을 포장하는 포장부가 PPE의 UV 코팅되어 햇빛에 강하고 원형의 절취부와 측면의 저수심도를 투명하게 두어 물의 양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가볍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통기성과 보수, 보비가 좋은 용토로 형성된 도8x8cm에 18개의 식재공간이 원하는 모양으로 식물을 식재할 수 있다. 때문에 도8로기에 화분으로 놓는 게 아니라 임시화단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아동이 자유롭게 1회 식재 후 교재의 시기가 되면 바로 심어내 버리면 되고 식재시에도 절단 반입 후 식재대 가능하지만 농장에서 식재 후 반입 원하는 장소에 놓고 통간 주면 되는 것이다. 1회 출 수 있는 물의 양은 20리터 더 이상의 물을 주면 측벽에 있는 배수공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시티가든 사용방법



1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로 이동
가볍고 간단한 윈터치형의 우리시티가든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로 이동 배치합니다.



2 식혈에 꽃을 꽂아주세요.
절취선을 벌리고 식물 포트모 혹은 트레이 꽃묘를 식혈(간단하게 식재가 가능한 홈)에 꽂아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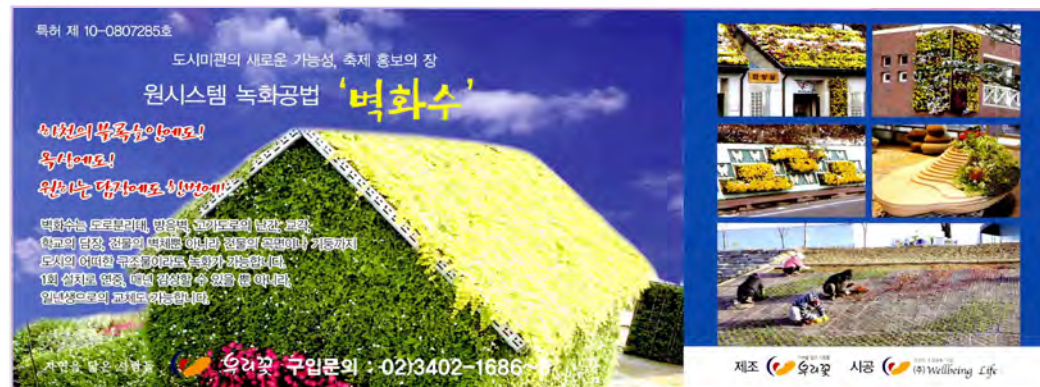
3 충분히 관수해 주세요.

배수구로 물이 썰 정도로 천천히 충분히 물을 관수합니다.
(10~15L)



4. 간단하게 설치 완료

사용이 끝난 화분은 분리하여 재사용하거나 일반
경사지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피복재로 사용
하거나 옥상녹화용 용토로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덩굴로 자라는 아름다운 관목 인동덩굴

품종이 다양한 덩굴성 관목소재

인동덩굴은 클레마티스, 으름, 머루 등과 더불어 펜스목화 또는 아치 등에 감아올리는 경계용 생울타리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덩굴식물이다. 줄기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6~7월경에 꽃을 피는데 꽃은 처음 흰색으로 피었다 차츰 금색으로 변해 "금은화"라고도 하는데 금색으로 변하기전 흰색이었을때가 향이 제일 좋다고 한다. 남부지방에서는 푸른 잎을 매단채 겨울을 나는 반상목성 나무이기도 한데 글자 그대로 좁고 긴 겨울을 참고 견뎌나는 의미에서 인동덩굴이라고 불리어 진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종류로는 일반 인동덩굴과 붉은색꽃을 피는 붉은인동, '우리꽃'에서 소개하여 알려지기 시작한 무늬인동이다. 하지만 인동덩굴도 많은 품종이 존재하고 있고 품종에 따라 덩굴식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잎의 형태와 색깔, 꽃의 형태, 화색 등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잎이 붉은색을 띄거나 노랑무늬가 들어있는 품종이 있고 화색에 따라서는 붉은색, 주황색, 노랑색 등의 꽃을 피우는 품종이 있다. 꽃의 형태가 이색적인 품종도 있고 잎이 매우 조밀



하게 형성되는 품종도 있다. 이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부지방에서도 겨울에 완전히 상목으로 월동하는 우수한 품종도 존재하고 또한 우리꽃에서 분리육성한 품종으로 꽃이 노랑색으로 아름답으며 잎은 원형에 가까운 품종으로 생육이 강건하고 자람이 빨라 매우 피복이 빠른 경관적, 기능적으로 뛰어난 탁월한 품종이 있다.

앞으로 많은 인동 품종이 출시됨에 따라 인동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품종을 한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단조름을 피하고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을것이라 본다. (C)



아름다운 돌연변이 '변종'



현진소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물학과 박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박사
동신전문대 원광(사립) 산학협력장
(주)한국자연생태연구소 (대기업) 환경부장
2002년~현재 동북아시아연구소 소장

생물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수학이나 물리학의 법칙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는 것이 수학이나 물리학이라면 생물학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돌이기로 하지만 하나이기도 하고 셋 이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며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오랜 세월이 걸쳐 생물들이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생물이 살고 있는 어떤 장소가 따뜻하게, 촉촉, 바람이 많은 곳으로, 염분 농도가 높은 곳으로 변했을 경우에 생물들은 이에 반응한다. 자신이 살기에 알맞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성질을 바꾸기도 한다.

물론 더 이상 적응해 살지 못하고 죽기도 한다. 사는 곳을 옮겨가는 방식의 적응은 식물보다 동물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다.

식물도 씨앗을 퍼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가기는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른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에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착생활을 하는 식물은 어떤 방법으로 환경 변화에 자신을 맞추어 갈까?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 변화는 돌연변이 등 유전자 수준에서 먼저 일어난다. 유전자의 변화가 어떤 경우에는 겉모습의 변화로 이어진다.

처음에는, 대부분은 미약하되 모습이 조금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더 커지면 완전히 다른 식물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조금만 바뀐 상태가 된 새로운 변이체를 식물학에서는 품종이나 변종으로 구분한다. 많은 특징이 어미종과 비슷하지만 몇몇 성질이 다른 것들이다. 이들 가운데, 꽃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인공적인 방법을 이용한 의도적인 변이체 유도가 아니라 자연계에서 저절로 일어난 꽃빛깔의 변화는 귀하기도 하여 산과 들에서 만날 때마다 흥미가 난다. 어미종과 꽃빛깔만이 다를 정도로 변이가 일어났을 때, 보통은 새로운 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종 내의 품종 정도로 자리를 매긴다.

대표적인 동양산 가운데 하나인 춘란은 꽃 색깔에 따라서 소신 등으로 변이를 구분하여 어떤 것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한다.

물봉선이나 산구절초처럼 여름과 가을에 꽃 피는 식물 가운데서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봄꽃들 가운데 어미종과 꽃빛깔이 다른 식물이 특히 많다.

자춧빛 꽃을 피우는 열레지나 하늘색 꽃을 피우는 갈퀴현호색 가운데 매우 드물게 순백색 꽃을 피우는 게 있다. 어린이날 전후에 피는 붉은빛 금낭화도 때로 흰 꽃을 피운다.

우리나라 산천에 흐드러지게 피는 진달래 중에도 흰 꽃이 피는 것이 있다. 깊은 계곡에서 검은 보랏빛 꽃을 피우는 미치광이풀은 매우 드물게 노란 꽃을 피우기도 한다.

이처럼 식물들 가운데는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며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다. 식물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이 변화가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인 지 궁금한 때가 있다. (C)

아름다운 화색의 다양한 품종을 선보입니다! 꽃백합시리즈

다양한 품종으로 백합원 조성가능

육군호 사이 혼성식재 가능

고성종은 칠곡사이 혼성식재만 가능합니다. (봄에는 칠곡종, 여름에는 백합종~)

해당종은 원단, 분경용으로 인산식물



자연을 닮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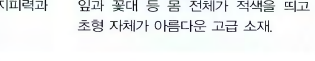
구입문의 : 02)3402-1686~8



우리꽃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화훼시장의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의 유명 박람회, 가든센터, 식물원 등을 방문, 소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변화와 트렌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적엽 붉은 잎이 아름다운 식물들

‘우리넷’에서 연재 되었던 무늬중시리즈 코너 등 지면을 통해서 경관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꽃 뿐만아니라 잎의 무늬, 색깔 등 식물잎에 대한 질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왔다. 이런점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소개하고자 식물들은 붉은색계통의 잎을 가지며 질감이 좋고 조경용 소재로 매우 유용한 식물들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식물원, 공원 등에 테마정원을 조성할 때 이러한 식물들만을 모아서 조성한다면 색다른 경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스틸베 파날  꽃이 피기전까지 잎이 붉은색을 띄는데 꽃과 잎이 모두 아름다운 품종.	펜스테몬 상록홍엽  봄에 꽃이 없는 시기에도 선명한 잎의 색상으로 주위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적엽좁쌀풀  좁쌀풀 품종중 하나로 수년에 황금좁쌀풀 등과 잘 어울려 식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빨강가우라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화하는 아름다운 꽃과 적엽의 잎을 가진 가우라 품종.	홍띠  연중 잎이 붉은 그라스류로 그라스 정원 뿐만아니라 일반 정원에서도 색깔 연출에 좋은 소재이다.	아주가류  왕아주가, 애기아주가, 주름잎아주가 등 아주가류는 음지에 꽃과 잎이 좋은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진다.			
붉은잎동자꽃  일반 동자꽃에 비해서 생육이 강건하고 화기가 길며 꽃 피기전 붉은잎이 좋은 동자.	상록갈사초  잎이 연중 적갈색을 띄는 그라스류로 유럽등지에서는 고급조경의 필수소재로 사용된다.	적엽클로버  잎이 적색을 띄는 클로버로 지피리와 잎의 질감이 뛰어난 소재.	휴케라 루비  잎과 꽃대 등 물 전체가 적색을 띄고 초형 자체가 아름다운 고급 소재.		
단풍세덤 	무늬여뀌 	붉은애기평의 비름 	왕상록패랭이 카멜레온 	적엽너도부추 	적엽칠경이 



60th anniversary
쿠켄호프 축제 KEUKENHOF, LISSE

올해로 60번째를 맞는 쿠켄호프 축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근 축제이다. 네덜란드 조이트홀란트주 리세 지방 쿠켄호프성 일대에서 3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말그대로 꽃의 왕국을 연출한다.

이 축제의 기원은 15세기 백작부인이었던 Jacoba van Beieren의 정원이었던 곳인데 백작부인의 요리재료를 심어놓았던 곳이라 그 당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949년 시장이 전시정원으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구근 재배 농가와 수출업자의 도움으로 32ha에 달하는 지역을 꽃 정원으로 조성하였다. 32ha에 달하는 면적에 조성된 넓고 넓은 꽃밭과 들판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도 이 곳 들판의 꽃을 보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꽃의 천국, 세계의 화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약 두 달 간만 감상하는 이 곳은 나르시스, 히아신스, 크로커스 튜립, 백합 등 구근 전시 정원과 4곳의 실내전시 파빌리온 등 전시 공간을 비롯하여, 레스토랑, 안내센터, flower shop 등 전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시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보트 관광, 꽃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테마 공원을 조성하였다. 93개의 뛰어난 생산자와 수출업자들이 최고의 구근으로 뛰어난 전시를 보여주는 쿠켄호프 축제는 네덜란드 화훼 재배 산업의 쇼윈도우와 마찬가지로 있다.

매 년 배장 후 공원 디자인계획을 다시 세워 새롭게 조성을 하여 매년 찾아도 새로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다. 전시를 통한 화훼 산업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공원과 지역을 연계한 광역적인 접근방식, 자연친화적인 운영방식, 농가와 화훼업자 그리고 지자체의 장점을 살린 테마의 선택이 이 축제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다. 구근축제를 통해 식물을 전시하고, 농촌에서 배울 거리, 볼 거리, 걸거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식, 이러한 쿠켄호프 축제의 성공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도되고 있는 농촌테마공원의 조성에 큰 물모양이 되고 있다.

즉,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의 잠재적 자원 개발을 주제로 삼되,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휴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직접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을 상공적으로 침투하여 국제적으로 성공하는 테마축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꽃 따라잡기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경 식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식물들을 조경 식재지에 알맞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꽃의 품종을 포함한 12개 조경 식물군의 다양한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2

다년생 초본

다년생은 적어도 2년은 지나야 성숙에 이르는 초본을 말한다. 품종을 잘 선택한다면 빠르게 멋진 형태를 갖추고, 꽃과 잎의 질감과 색이 뛰어난 몇 년 안에 멋진 정원을 만들어낸다. 전형적인 숙근초 정원을 만들거나 관목 또는 일년생 화단에 혼합식재하여 뛰어난 화단을 만든다. 다양하게 이용하여 화분, 인도우박스 등에 식재하여 색다른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다년생이란?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2년 이상 살며, 한 번 성숙에 이르면 매년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보통 종자를 맺기 전에 배 내 꽃대를 올리고, 지상부는 가을에 죽지만, 봄에 다시 새롭게 생장을 시작하는 식물을 일컫는다. 목본성이 아닌, 상록성 식물들 Berenia, Yucca 같은 식물들과 Artemisia, Penstemon과 같은 아관목성 식물들도 포함한다.

장식적인 특색

숙근초는 매우 넓은 범위의 식물군으로 다양한 식물이 포함되어 있어, 식재 디자인에 맞추어 모양, 색, 질감, 향기, 키, 지피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조경해야 하는 지역에 미리 우입한 녹색 식물의 뒷배경에 다양한 색의 식물들을 식재하여 대조적인 경관을 만들거나, 식물의 구조적인 형태를 돋보이게 이용할 수도 있다. 잎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빛나는 어두운 녹색의 잎의 Acanthus, 다양한 잎의 Hosta 품종, 기타 무늬종 품종 등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모양이 특이하거나 잎의 질감과 배열 등을 이용하여 눈을 사로잡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

꽃 또한 색, 크기,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여 조경에 골이 없는 다양성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방꽃차례가 멋진 Achillea, 키가 큰 이삭꽃차례가 눈에 띄는 Lupinus 등 잘 선택한 식물군을 이용하면 좋다. Hemerocallis, Nicotiana, Phlox, Agastache와 같은 숙근초들은 별과 나비를 유혹하는 좋은 향 때문에 인기가 좋다.

조경 적용

전형적인 숙근초화단은 1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보통 잔디밭으로 가려진 직사각형의 커다란 구획과 벽과 울타리 아래로 숙근초들이 키를 맞추어 배열된 양식이 주를 이룬다. 오늘날, 숙근초 화단은 꽃은 물론이고 잎의 색깔과 질감까지 고려한 식재 계획아래 만들어진다. 화단에 미묘한 변화의 조합을 주는 시리즈 식물들을 한데 식재하거나 한 종류를 대단위로 심어 강한 인상을 주는 방법 등도 쓰인다. Lamium, Geranium, Bergenia 같은

은 종은 지피종 중에 많이 관상가치가 높다.

숙근초, 관목, 구근, 덩굴식물, 열, 이년생의 혼합 화단은 일 년 내내 경관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다. 숙근초와 화단의 중심이 되는 낙엽성, 상록성 관목을 주의 깊게 선택하여 식재의 균형을 잡고, 숙근초와 관목이 성숙하여 정원에 정착할 때까지 일, 이년생로 빈자리를 채워준다. 봄에 튤립, 아네모네 등과 같이 일찍 꽃이 피는 구근과 늦봄에 꽃을 피우는 호스타 종류를 함께 심는 것도 좋다.

숙근초 화단

숙근초는 조정적으로 매우 뛰어난 효과를 주지만, 정원에서 각각의 생장조건을 맞추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야생화는 기주, 생활형, 토양의 타입 등이 제각각인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품종을 잘 선택하면 지역이 후미진 곳이다. 트인 곳이다. 햇볕이 강한 곳이다. 그늘진 곳이면 간에 또는 토양이 축축한 곳이면 건조한 곳이면 비옥한 곳이다, 아니면 간에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잘 기를 수 있다.

숙근초 화단에 들어갈 식물은 화단의 위치, 사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보통 봄과 가을에 잘 준비한 토양에 심는데, 주변의 잡초를 잘 제거해야 한다. 어린 식물은 정착할 때까지 물을 주기적으로 잘 주어야 한다. 성숙한 숙근초는 건조기가 길지 않은 이상 보통 물주기가 거의 필요가 없다. bone-meal 또는 균형 잡힌 완효성 비료를 일 년에 한 번 표토에 시비한다.

보통 이른 봄 비온 후에 한다.

Aster novibelgii, Delphinium, Phlox 등과 같은 식물은, 성숙한 개체 크기의 1/4 또는 1/3정도 되었을 때, 약하게 올라오는 싹은 잘라준다. 강한 싹에서 크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 때문이다. 개화기를 길게 하려면 죽은 꽃대도 주기적으로 잘라주어야 한다. 가을에, 가지부에서 올라오는 싹을 자르고, 사든 부분을 제거하는 정리 작업을 한다.

봄에 토양이 녹으면, 유기물로 멀칭을 한다. 화단에 있는 숙근초는 증식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3~5년마다 분주를 해주어야 한다. 파내어 다시 심을 때는 나무와 관목 주변의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겨울철 화분과 식물의 식물체를 그대로 남기두면, 경관뿐 아니라 식물의 가지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화분에 심는 숙근초는 양토질에 혼합토양을 쓰고, 완효 비료를 첨가한다. 양토의 무게가 안정성을 주지만, 옥상정원이나 베란다정원에서 화분이 너무 무거워지면 옮기기 힘들므로 유의한다.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생장기에 건조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에는 매일 물을 주도록 한다. 화분이 클수록 물주기 주기가 길어진다. 멀칭은 수분을 보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분주하거나, 화분갈이를 한 식물에는 멀칭을 해준다. 숙근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식한다. 종자를 파종할 때는 많은 수의 식물체가 필요할 때 한다. 품종들은 종자로부터 얻을 수 없으므로, 분주와 꺾꽂이를 한다.

